# “야구도 보고, 관광도 하고”… 광주투어버스 확대

**챔피언스필드 정류장 추가**
**경기 종료후 순환노선 운행**
**관광공사·기아타이거즈 협업**
**김치·서창억새축제장 등 추진**

광주시가 ‘부르면 찾아가는’ 수요응답형(DRT) ‘광주투어버스’의 운행 정류장에 기아챔피언스필드를 추가한다.

광주시는 또 기아챔피언스필드 정류장 뿐만 아니라 앞으로 김치축제장, 서창억새축제장, 김대중컨벤션센터를 새로운 정류장으로 확대, 관광객의 이용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용객이 원하는 정류장에서 앱으로 호출하면 찾아오는 ‘광주투어버스’의 정류장에 기아챔피언스필드를 8일부터 추가하고, 기아 타이거즈 구단과 협업해 각종 홍보와 이벤트를 추진한다.

지난 7월23일 운행을 시작한 광주투어버스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적용 관광형 버스로, 이용객의 다양한 호출에 따라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최적 경로를 생성해 탄력적으로 노선을 운행한다.

이용객은 앱으로 승차할 정류장에서 탑승인원을 선택해 광주투어버스를 호출한 뒤 가고 싶은 목적지와 가까운 정류장에 내리면 된다. 정류장은 광주 주요 관광지인 △비엔날레 전시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양림오거리 △사직전망대 △광주송정역 △광주공항 △유스퀘어 터미널을 중심으로 운행한다.

여기에 8일부터는 기아챔피언스필드를 새롭게 추가한다.

기아 홈경기가 없는 날이나 홈경기 시작 이전에는 호출을 통해 주요 교통거점과 기아챔피언스필드를 포함해 광주지역 관광지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운행한다.

기아 홈경기가 종료되는 시각인 밤 9시 이후에는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유스퀘어터미널~농성역을 연결하는 순환노선을 운행한다. 광주를 찾는 원정 관람객들에게 관광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야구장 인근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환형 노선의 운행 기간은 8월 중 기아챔피언스필드 홈경기가 있는 8~11일, 20~22일, 27~29일이며, 운행 시간은 평일 밤 9시10분부터 10시40분까지, 주말은 밤 8시50분부터 10시20분까지이다.

다만, 운행시간은 경기 일정과 시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만큼 세부적인 운행 사항은 광주투어버스 앱 등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1회권 탑승 요금은 성인 1700원, 청소년 1350원, 어린이 850원이다. 탑승 후 단말기 태그를 통해 결제하고 시내버스, 지하철 환승이 가능하다.

이동이 잦은 관광객을 위한 1일권 패스도 판매한다. 이용요금은 1인 3000원으로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고 24시간 동안 무제한 탑승이 가능하다. 다만, 1회권과 달리 다른 대중교통 수단과 환승은 불가하다.

광주관광공사와 기아타이거즈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광주투어버스 탑승과 야구경기 관람을 함께 인증하면 기념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추진한다. 또 경기 중 경기장 전광판을 통해 앱 다운로드와 당일 운행 일정을 관람객에게 알리는 등 광주투어버스 홍보에 적극 나선다.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관광교통서비스의 운행 정류장 확대를 통해 광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보다 다양한 장소에서 손쉽게 광주투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광주의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투어버스 앱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관광 오매광주 누리집(tour.gwangju.go.kr)과 광주관광공사 누리집(www.gjt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 전남도, 고수온·적조 피해 최소화 현장 점검

**여수 양식장서 어업인 애로 청취**

전남도는 해양수산부가 고수온 심각 I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8일 여수해역 어류 가두리 양식장을 방문해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최일선에서 힘쓰는 어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송명달 해수부 차관,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조합장 등이 함께했다.

지난해 여수해역에서는 고수온으로 조피볼락 등 해상어류 662만 마리가 대량 폐사해 117어가에 122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올 여름 평년보다 수온이 0.5~1.0℃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전남도는 종합상황실을 운영,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산소발생기, 수차 등 7종 1만6467대, 액화산소 4만톤, 면역증강제 168톤, 적조방제를 위한 황토 6만톤을 확보해 적극 대응에도 나섰다. 고수온·적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상수온 대응 지원사업, 적조방제사업 등 6종 241억원을 투자하는 등 촘촘한 재해 예방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날 현장에서 산소공급기 등 대응장비 가동 상태, 양식밀도 낮추기, 사료 공급량 조절 등을 살피고, 원활한 피해 복구를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강조했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관계자들이 8일 여수해역 어류 가두리 양식장을 방문해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최일선에서 힘쓰는 어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 광주문학관, 하반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9~11월 시민·어린이강좌 운영**

광주문학관은 ‘시 창작과 콘서트’, ‘그림책과 공예’, ‘어린이 문학학교’ 등 올 하반기 정기프로그램 6개 강좌를 운영하고, 오는 13일부터 수강생을 모집한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 창작과 콘서트 △그림책과 공예 △시를 노래하라 3개 강좌를 운영한다. ‘시 창작과 콘서트’는 시를 좋아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나의 삶에 대한 시를 창작하고 발표하는 수업을 진행한다. ‘그림책과 공예’는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독후 활동으로 관련 공예 작품을 만든다. 또 ‘시를 노래하라’는 시를 낭송하기 위한 호흡법과 무대 매너를 배우고 실제 발표회를 진행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책이랑 함께 놀아요 △어린이 문학학교 △나만의 책만들기 3개 강좌를 운영한다. ‘책이랑 함께 놀아요’는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주제 관련 도서를 읽고 전통놀이를 함께 한다. ‘어린이 문화학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소개, 편지, 일기, 동시 등 글쓰기를 배운다.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한 ‘나만의 책만들기’는 차시별로 표현한 글과 그림을 엮어 책을 만들고 발표하는 수업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각 10차시로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며, 수강생은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은 광주문학관 누리집(https://www.gwangju.go.kr/gjlm)에서 오는 13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학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문학관 운영팀(062-613-6192)으로 문의하면 된다.

**노병하 기자**

## 광주농업기술센터, 작목별 재배기술교육

광주시농업기술센터는 오는 13일부터 딸기, 콩, 블루베리, 양봉, 시설과채류 등 5개 작목별 재배기술 교육을 진행한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농업인들이 영농시기에 맞춰 작목별로 현장 중심의 핵심 재배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은 한 작목당 2회씩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며, 해당 품목에 관심 있는 광주시 농업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광주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시라 광주농업기술센터소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업기술의 스마트화 등 격변하는 농업현장의 적용 기술을 적기에 제공해 지속할 수 있는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 “전남 해수욕장서 무더위 날리세요”

**완도·여수·보성·함평 4곳 추천**
**해양치유·도심 속 피서·펫캉스**

전남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무더위를 식힐 최고의 피서지로 해양 치유, 도심 속 피서, 캠핑, 펫캉스 등을 즐길 수 있는 지역 대표 해수욕장 4곳을 추천했다.

추천 해수욕장은 완도 명사십리, 여수 웅천, 보성 율포솔밭, 함평 돌머리 등이다.

완도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은 국제적으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해변으로 인증받은 국내 최초 블루 플래그 인증 해수욕장이다. 10일 해양치유를 주제로 모래조각품 전시와 플라잉 보드쇼, 9~10일 해양치유 치맥페스티벌, 17일까지 카약, 래프팅, 서프보드 등 해양레저스포츠 등 무료 체험도 운영한다.

인근 완도해양치유센터에서 해양기후, 해수, 머드, 해조류 등 해양자원을 활용해 몸과 마음도 치유할 수 있다.

자동차나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여서 웅천 해수욕장은 오는 9월8일까지 패들보드, 카누, 윈드서핑, 싯온카약, 스노클링, 스쿠버 등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보성 율포솔밭 해수욕장은 1.2㎞에 이르는 은빛 모래밭, 과 소나무숲이 운치를 더한다. 야영장 이용도 자유로워 맨발 걷기, 캠핑 등을 즐기는 피서객에게 인기다.

특히 해수욕장 앞에 위치한 율포해수녹차센터 3층에서는 바다를 바라보며 노천욕도 즐길 수 있으며, 지하 120m에서 끌어올린 청정 암반해수와 찻잎을 우려낸 녹수를 이용한 목욕장도 운영 중이다. 오는 11일까지 선선한 여름 밤바람을 느끼며 음악을 즐길 버스킹 공연이 펼쳐진다.

바닷물이 맑고 수심이 얕은 함평 돌머리 해수욕장의 경우 해변 뒤편에 울창한 곰솔숲이 있어 자연을 한 몸에 느낄 수 있다. 애견 동반이 가능해 반려견과 함께 여유로운 펫캉스도 즐길 수 있으며, 오는 15일에는 뱀장어 맨손잡기 행사도 열린다.

한편 전남에 위치한 해수욕장에 대한 정보는 전남 해수욕장 누리집(https://jnbeach.jeonnam.go.kr/)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오지현 기자**

## 전남도, ‘섬의 날’ 행사서 8개 연안 섬 홍보

전남도는 오는 11일까지 4일간 충남 대천해수욕장에서 열리는 행정안전부 주관 섬의 날 행사에 8개 연안 시군과 함께 섬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제5회 섬의 날은 ‘우리 섬, 좋다’라는 주제로 국제 섬 포럼, 어린이 그림·동요대회, 섬 둘레길 걷기 등 행사와 연안 지자체의 홍보 전시관·체험 활동 등으로 펼쳐진다.

전남도는 목포시, 여수시, 고흥군,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과 홍보 전시관, 포토존,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요 홍보 주제로는 △전남도 ‘친구맺기 좋다’ △목포 외달도·고하도 ‘섬, 낭만에 취하기 좋다’ △여수 개도와 금오도가 ‘섬, 2026년 여수에 오면 더 좋다’ 등으로 정했다.

이와 더불어 △강진 가우도 ‘함께 거닐기 딱 좋다’ △해남 땅끝맴섬·대섬 ‘해남 섬 일몰이 좋다’ △완도 신지도 ‘완도섬 치유하기 좋다’ △진도 접도 ‘힐링하러 가기 좋다’ △신안 선도·임자도·도초도·퍼플섬 ‘섬, 예쁜 꽃보며 걷기 좋다’ 등이다.

**오지현 기자**